# 지역 유통업계 '황금연휴 효과' 톡톡

## 광주신세계 매출 15%·롯데百광주점 30% 늘어

## 어린이날 선물 '완구'·어버이날 '건강식품' 인기

황금연휴(5월 5일~8일)와 봄 이사철이 겹치면서 지역 백화점 등이 품목에 따라 최고 130% 이상 매출이 신장하는 반짝 특수를 누렸다.

또 어린이 선물은 완구, 어버이 선물은 건강식품, 선생님 선물은 화장품, 향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9일 "이번 연휴 기간 매출을 분석 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화장품 57.1%, 건강보조식품 50.7%, 스포츠 30.3% 등이 큰 폭으로 신장을 했다. 또 핸드백, 남성패션, 식품 등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용품은 119%의 놀라운 신장세를 기록하며 40~50대 이상 남성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광주신세계는 밝혔다. 반면 전통적으로 5월 초반 매출을 견인했던 아동의류는 -7.6% 역신장했다.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이 증가하며 간편조리식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늘어 델리(즉석조리식품)부분 매출도 11.8% 신장했다.

또 디저트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유명 디저트 매출 역시 76.0%의 고속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박인철 영업기획팀장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어린이 날, 어버이 날로 이어진 연휴에 올 연초부터 잠시 주춤했던 매출이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 기간 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이 신장을 기록했다.

본격적인 혼수, 이사 시즌을 맞이하여 가전 상품군이 130% 이상 신장했고, 아동 75%, 해외명품 48% 신장했다.

가정을 달을 맞아 선물을 받는 대상에 따라 선호하는 선물도 뚜렷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선물관련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어린이 완구는 18.7% , 건강식품은 15.3% 신장했다.

어린이날 선물은 완구가, 어버이날 선물은 역시 건강식품이 대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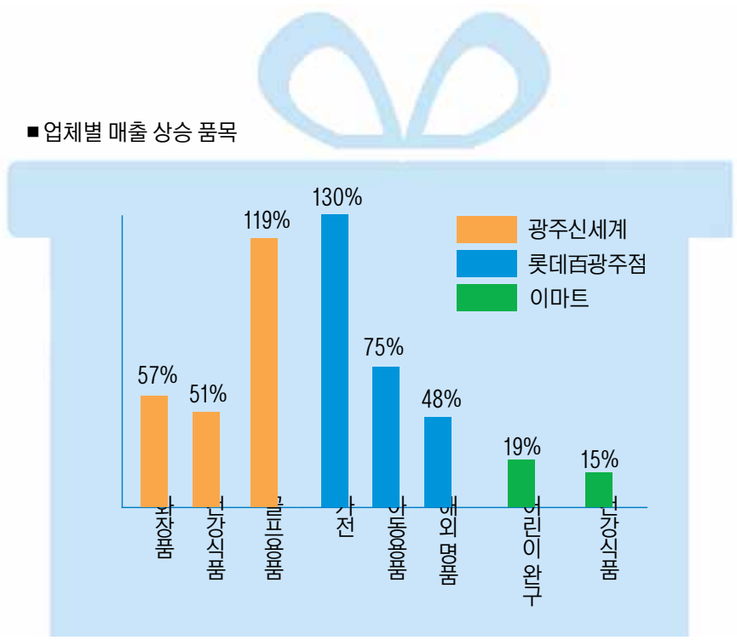
또 건강식품 중에서는 홍삼의 인기가 단연 높았다.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을 앞두고 화장품과 향수의 매출도 늘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코스메틱 페어를 열고 브랜드별 베스트 아이템 추천, 가정의달 감사기획 세트, 상품권 증정, 구매금액별 증정행사 등을 진행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업체별 매출 상승 품목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7.81 (-8.90)
- ⬇ 금리 (국고채 3년) 1.41% (-0.02)
- ⬇ 코스닥 691.82 (-2.35)
- ⬆ 환율 (USD) 1165.80원 (+11.50)

# "어르신에 '맑은 소리'를 선물하세요"

## 금강보청기 난청 기능 강화…체험·평생케어시스템 도입

"5월 가정의 달 어르신들을 위해 소리를 선물하세요."

금강보청기(대표 선명진)은 9일 국내 최초의 보청기 체험시스템과 평생케어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보청기가 올해 출시한 신제품 K-시리즈는 수많은 난청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청각과학기술에 의해 탄생한 제품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추가돼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한다.

기존 제품보다 어음조절기능과 음악 오디오 기능, 난청과 이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또 보청기 조절 구간 또한 늘려 난청인들이 청력 조절을 미세하게 할 수 있으며 고막형에서 귓속형 등 종류가 다양해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선명진 금강보청기 대표는 "최고의 제품 공급뿐 아니라 국내 최초의 보청기 체험시스템과 평생케어 시스템 도입으로 금강보청기만의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고객 만족과 감동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의 1588-5233. /김대성기자 bigkim@

# 4월 주택담보 대출 3조원↑

## 심사강화 앞두고 수요 급증

지난달 주요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월별 증가액으로는 가장 크며, 작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4월 증가분으로도 최대 규모다.

지난 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에 견줘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이사철이 본격화한 지난달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4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6조5956억원으로, 전월인 3월말 잔액(353조3889억원)보다 3조2067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월 2조16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월(1조3308억원), 2월(8460억원) 순이었다.

4월 증가액은 작년 같은 달(6조8282억원) 대출액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3~4월에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됐다. 연 2.6%대로 금리가 낮은 데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인기가 높았다.

작년을 제외하고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6일 광주시 서구 금화로 15(금호동)에 개관한 쌍촌 엘리체 모델하우스에 첫날 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서진종합건설 제공〉

# 광주 서구 교통·상권의 중심 '쌍촌 엘리체'

## 유스퀘어·신세계 등 인프라 강점…293세대 분양

'쌍촌 엘리체'가 광주시 서구 금화로 15(금호동)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6일 하루에만 3000여명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광주시 서구 월드컵 4강로 197번길 14-2(쌍촌동)일대에 들어서는 쌍촌 엘리체는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광주 중심부에 위치해있는 뛰어난 입지로 수요자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병원과 맞닿아있고 지하철 쌍촌역이 인접해 광주 주요 교통로로 바로 이어지는 최적의 사통팔달 자리다. 또한 상무지구와 가까워 서구의 중심상권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으며 터미널 유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다.

쌍촌 엘리체는 인기 있는 중소형 평형대 73㎡, 84㎡ A·B·C 타입과 효율적인 설계, 체계적인 단지계획을 앞세워 수요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에 들어서며 당첨자 발표는 19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제한 전매 혜택과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진행 등 다양한 프리미엄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17-24층, 총 602세대 중 일반분양 293세대 및 복리시설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 문의 062-573-44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편의점 업계 "옥시제품 팔지 않겠다"

## GS25·씨유, 신규 발주 중단…세븐일레븐 "순차적 철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생활용품업체 '옥시'에 대해 불매 운동이 번지는 가운데 편의점 업체들도 옥시 제품을 팔지 않거나 판매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GS25는 9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옥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시 제품에 대한 신규 발주를 중단한다"며 "점포에 남아있는 옥시 상품도 옥시 본사로 반품 절차를 거쳐 사실상 철수한다"고 밝혔다.

씨유(CU)도 이날부터 각 점포의 옥시 제품 발주를 차단했다.

세븐일레븐도 '순차적 옥시 제품 철수' 방침을 정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발주는 이날부터 끊겼고, 매장에서도 가맹점주들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옥시 제품들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LH, 올 700억 규모 토지 매입 추진

LH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은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사들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국내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에도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이다.

매입대상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오는 20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에 LH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LH는 매각접수 후 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매매계약체결·대금지급·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김대성기자bigkim@